

대선 D-30 광주일보, 광주·전남·전북 2000명 여론조사 조사결과 통계표 인터넷 광주일보(kwangju.co.kr)

단일화 호남민심 安·文 초접전

적합도, 안철수 48.0% 문재인 46.2%...경쟁력은 0.2%P 差

다자대결 文 41.4% 安 39.6% 朴 13.9%

18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호남 민심을 놓고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야권 후보단일화의 실질적 마감 시한이 1주일(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26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은 어느 후보가 정권 교체에 더 부합할 것인가를 막판까지 주시하면서 최종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뷰'에 의뢰, 지난 16~17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전북지역 유권자 2000명을 대상으로 18대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자 대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4%의 지지율을 기록, 39.6%를 얻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내인 1.8%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3.9%의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비교적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지지율은 광주에서 안 후보 45.6%, 문 후보 38.1%, 전남에서는 문 후보 42.6%, 안 후보 41.2%, 전북에서 문 후보 42.6%, 안 후보 33.4%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광주 11.3%, 전남 11.7%, 전북 18.2%의 지지율을 보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74.3%, 박 후보는 16.5%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75.3%, 박 후보가 17.7%의 지지율을 보였다.

야권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48%의 지지율로 46.2%의 문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안 후보가 53.7%를 기록, 42.8%의 문 후보를



10.9%포인트 차로 앞섰다. 전남에선 안 후보 47.7%, 문 후보 46.2%, 전북에서는 문 후보 48.7%, 안 후보 44.2%로 집계됐다.

야권 단일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도 0.2%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양상이 펼쳐졌다. 안 후보가 47.5%, 문 후보가 47.3%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안 후보 53%, 문 후보 43.3%, 전남에서 문 후보 47.8%, 안 후보 46.6%, 전북에서 문 후보 49.9%, 안 후보 44.2%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58.8%, 한나라당, 12.6%, 진보정의당 2.4%,



통합진보당 2.1% 순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9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 비해 10% 포인트 하락한 반면, 새누리당은 두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유권자 수 비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유선·휴대전화(유선 1000명, 휴대전화 1000명)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지역별 표본수는 광주 540명, 전남 742명, 전북 718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단일화 협상을 위한 2차 단독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다시 만난 文·安...의원 정수 축소 합의

단일화 방식 협상 오늘 재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9일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팀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다. 두 후보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조정, 국무총리 인사제정권 보장 등을 포함한 '새정치 공동선언문'에도 합의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중단돼 5일째 파행을 맞았던 실무팀 간 '단일화 협상'이 6일 만에 재개돼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합의 시한 내 단일화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두 후보는 18일 오후 중구 정동의 한 음식점에서 단독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항에 합의했다고 양측의 박광운, 정연순 대변인이 밝혔다. 두 후보는 또한 정권교체와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6일 첫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배석자 없이 두 후보만 참석했으며, 30분 가량 진행됐다.

두 후보의 회동은 이날 문 후보가 '단일화 불' 양보 의사를 밝혔고, 안 후보가 '조건 없는 단일화' 의지로 화

답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새 정치 공동선언문'에는 ▲대통령 논공행상 배제 ▲각 부처 및 기관의 인사권 자율성 보장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지방분권 강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 ▲상시 국정감사제도 정착 ▲중앙당 권한 축소 ▲공천권 국민에게 ▲기초의회 정당 공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여 의원 정수를 조정하겠다고 합의했다.

앞서 이날 광주를 방문한 안 후보는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공동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늘 광주 방문 일정을 끝내고 상경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문재인 후보를 만나 제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두 후보자가 실무자에게 맡기지 말고 함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타결을 위해 여론조사 방식이든, '여론조사+α'든 단일화 방안을 안 후보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다"며 즉각적인 단일화 논의 재개를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의 양보...민주 지도부 총사퇴

박지원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유임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최고위원 전원이 18일 야권 후보단일화를 위해 전격 총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소집,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당 지도부 공백에 따른 후임 지도부에는 별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대신 문재인 대선후보가 당 대표권한 대행까지 겸임하기로 했다. 또, 박지원 원내대표의 경우 예산 심의 등 정국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감안해 연말 정기국회 때까지 유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직 정권교체와 단일화를 위한 하나의 밑줄이 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사퇴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말했지만 정권교체는 너무나 절박한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의 거취가 결코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를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일

념으로 무거운 소임을 내려놓는다"며 "정권교체가 그 무엇보다 절박한 일인만큼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울곧고 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 줄 것 ▲단일화 논의 즉각 재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중 등을 문, 안 두 후보에게 제안하는 한편 "민주당을 구태정당으로 지목하고 청산 대상으로 모는 것은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인 만큼, 안 후보도 그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미 사퇴

한 김한길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전체 8명 가운데 박지원 이종걸 장하나 최고위원 등 3명이 지방 출장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대학교행정대학원

2013학년도 모집분야

■석사과정(02간) : 광주반, 여수반
▶특별전형('12. 12. 5까지 접수)
▶일반전형('12. 12. 19까지 접수)
■최고정책과정 ■관리자과정
전화 062-530-5196 FAX 530-2266
홈페이지 : http://cnugpa.kr

비교할수록 <토요타>

토요타 광주전시장 OPEN 이제 광주에서 비교해 주세요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36개월 무이자 할부
광주전시장 062-371-8383



父/傳/子/傳

부전자전



읽는 부모가 읽는 아이로 키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스마트폰보다 가정에서 신문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신문읽기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학생들은 인터넷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는 신문에 있다. 신중한 링크 넘세로 아침을 맞읍시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

"아침마다 신문을 읽으시던 아버지를 보면서 호기심에 따라 시작한 신문읽기가 내 인생의 출발이었다." 고도원 아침면지문화재단 이사장

